

알림

- * 수배해제를 위해 투쟁하는 정치 수배자들에게 힘을 줍시다.
- * 청와대에 항의 엽서를 보냅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김영삼대통령)
- * 수배해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합니다.
- * 지원성금을 보냅니다.
(한일은행, 126-370176-12-001 예금주 : 손인호)
- * 지지방문을 합니다.
(KNCC 농성 투쟁장)

-6공 정치수배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수배자 대책위-

									
정 은 철(연세대, 85) 89년 전대협 정책위원 입수경 방북 관련 국가보안법	조 정 신(전남대, 86) 89년 남대협 의장 평측관련 국가보안법등	정 영 훈(서울대, 86) 91년 전대협 정책위원 서울대 민해활동사건 국가보안법등	김 중 철(영남대, 86) 90년 5월 투쟁 집시법등	권 오 중(연세대, 87) 90년 연세대총학생회장 조국통일촉진 그물자본 국가보안법등	김 표(홍익대, 87) 91년 홍익대 총학생회장 집시법등	이 수 찬(한양대, 87) 91년 한양대 사회부장 민자당사 점거투쟁 집시법 등	안 영 민(경북대, 87) 91년 대경총련의장 국가보안법, 집시법등	이 철 상(서울대, 87) 91년 서총련의장 국가보안법, 집시법등	윤 중 화(경북대, 87) 90년 경북대 학부위원장 90년 5월 투쟁관련 집시법등
									?
손 인 호(서강대, 88) 92년 서강대총학생회장 92년 범청학련관련 국가보안법등	임 현 태(연세대, 88) 91년 연세대 총학생회장 91년 5월 투쟁관련 집시법등	태 재 준(서울대, 88) 92년 전대협의장 국가보안법등	김 익 남(영남대, 88) 90년 9월 투쟁관련 집시법등	이 병 철(조선대, 88) 92년 3월 투쟁 특수공무집행법등	김 근(경희대, 88) 91년 서총련 의장 92년 집시법	정 철(외대, 89) 91년 6.3투쟁관련 폭력	권 응 상(외대, 89) 91년 6.3투쟁관련 폭력	정 상 응(외대, 90) 91년 6.3투쟁관련 폭력	그 외 200인의 정치수배자들

지명수배

CPh.d.3

93.0.0. 문민검찰

문민정부 출범 반년, 지금도 군사정권이 내린
부당한 정치수배에 쫓기는 양심들이 있습니다.
창살없는 감옥에 갇힌 이들은 하루 빨리
가정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위원장 인사말



유난히도 번덕스러운 날씨로 우리들 곁에 머물러 있던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 자연순환의 법칙앞에서 순순히 자신의 자리를 가을에 넘겨주는 모습에서 승리를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내리쬐는 직사광선 피하지 않고 온몸 흠뻑 적셔가며 노력한 댓가를 수확하는 등벽이 떠오릅니다.

여기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세상으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행, 추적, 감시, 투옥이라는 살벌한 언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는 긴장된 생활, 수배생활의 수많은 곡절등, 과거의 시간속에 묻고 어느 사람들과 다음없이 내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혼여 있습니다.

승리의 영마루를 향한 결코 험지않은 많은 발걸음에서 채이고, 찢기워져 상처 하나 등 아니전문 자신의 상처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상처 어루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동지들, 정치수배자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는 공간은 10평도 채 못되는 농성장이나 학교의 후미진 공방뿐임을 느낍니다.

과거에 저질러졌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청산과 새로운 신한국을 만드는 시대에 수배자의 이러한 처지는 너무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법 국면적 힘량의 견지에서 6공 정치수배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제 6공 정치수배문제 일관해결의 기치를 통일합니다. 작지만 너무도 적실한 저희들의 호소에 후배학생등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

차

위원장 인사말

차 례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수배자 대책위원회 결성 경과 ----- 1

수배해제 투쟁의 정당성 ----- 3

대책위 참가자 명단 ----- 5

국가보안법 왜 철폐되어야 하는가? ----- 8

별첨자료

례

대책위 향후 투쟁일정 ----- 11

수배수기 (임 헌태, 정 은철) ----- 12

별첨자료

--- 6공 이후 ---

대한민국헌정회
출판부 (서울) 출판부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 건설 경과

수배자 대책위원회는 구성원 자체가 "수배"라는 사회적 신분의 제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전국적 조직을 건설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수배자가 수배자를 수배한다"는 말처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연락처를 쉽사리 알 수 없는 대상자를 수배자라는 위험한 신분으로 찾아다녀야 했던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배자들의 처지와 요구가 각양각색이라는 점이 조직을 만드는 데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배명목(사건), 죄명(국보법, 집시법등), 수배기간(현재상태), 하고 있는 일, 학번차이 등등 어떠한 하나의 테두리로 쉽사리 묶어 세울 수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치수배의 완전 해제라는 우리의 요구를 실현해 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끝에 남한 운동사상 처음으로 수배자들의 전국 조직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 투쟁 경과 ---

2월 : 연세대에서 10여명의 수배자가 부당한 정치수배 해제를 주장하며 단식농성(1주일)을 전개함

6월 : 광주에서 7명의 수배자들이 1주일간 단식농성 전개
정치수배 해제 촉구 서명운동 전개(1만 2천명 서명)
검찰청 항의 방문

7월 : 그간의 투쟁의 경험에서 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조직 건설과 전국 집중적인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됨.
15일 광주에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4개 지역 4인의 대표가 모여 전국적 조직건설을 결의.
이후 각 지역별로 수배자 총회를 개최하여 8월 9일부터 서울에서의 집중적 농성투쟁을 강행하기로 함.

8월 : 9일 연세대에서 전국 수배자 총회 개최(40여명 참가)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조정신(89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학형을 선출.
[정치수배 해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며 무기한 농성시작.

왜 정치수배는 해제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정치수배"라는 단어의 개념과 "정치수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수배는 "양심수"라는 정치현상의 선행사건으로서 한국의 왜곡된 정치지형이 그 발생의 기본배경이다. 과거 유신이래 국민의 기본적 인권침해에 대항하여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이 땅의 왜곡된 정치, 경제구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족의 통일과 자주화 실현의 투쟁과정에서 정치수배는 만들어 졌으며 정치수배는 곧이어 양심수가 되는 폭력적 인권 탄압의 전형이 이곳에서 탄생하였다.

--여기에서 양심수란 용어는 원래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규약에서 나온 말이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양심수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함이 없이 정치적, 종교적 또는 그 밖의 양심에 입각한 신념의 표현을 이유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에 위배되는 투옥, 구금, 육체적 억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때 그 폭력성의 유무는 정부의 발표나 판결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양심수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하면 "법률의 실질적인 입법 목적이나 법률 집행의도가 국제인권규약의 기본정신에 위배될때 그 법을 어긴 사람" 이거나 "어떤 사람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거나 쟁취하기 위하여행동한 결과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 일뿐만 아니라 "행위시 에는 양심수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사법적 절차과정에서 인권을 침해 받았거나 행동한 결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모두 양심수라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목적, 절차, 내용에 있어 국제인권 규약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분명 양심수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양심수의 개념규정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양심수의 바로 전단계에 해당하는 '정치수배자'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 지금까지 정치수배의 문제는 부당성이 거론되어 왔지만 "정치수배"가 가지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언제나 언론과 여론의 시각지대에 묻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양심수 등 시국관련자의 사

면복권이 있을 때도 "정치수배"의 경우 "법집행의 형평성"등의 구차한 변명의 개진 속에 언제나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일반 수감 양심수의 경우 비교적 여론과 언론에 공개되어 존재하며 지속적 투쟁의 과정에서 그 처지와 상태가 국내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치수배자'의 경우 수배라는 당사자의 기본적 조건이 정치권력과 언론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개개주체들이 지극히 고립되고 은밀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정치 지형의 변화와 사면복권의 진행에도 자신의 일치된 주장과 처지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자기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치수배의 경우 "자유로운 공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심수도 못되는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고 있으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단 하나의 통로도 가지지 못한바 현재까지 그들의 인권은 언제나 시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장기간의 수배생활은 기본인권인 '공민권의 장기간 정지'를 필연적으로 유발하며,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전적으로 차단하며, 가족, 친지, 친구로부터 격리, 가장 기본적인 인간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강제한다. 특히 유교적 덕목의 전통이 강하게 자리잡은 우리 민족의 경우 수배자들은 부모님의 상등 "관혼상제"의 대사에 전혀 참여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며 시시각각 수사기관의 미행, 체포, 고문, 투옥에 대한 두려움을 뼈속 깊이 확인으로 남기게 된다.

또한 수배자의 개인적 자아실현과 사회적 활동의 원천적 봉쇄는 경제생활, 정치생활 등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며 수배자의 심신을 극도로 파괴하게 되고, 인권유린의 형벌적 성격은 강하게 띄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 엠네스티의 양심수 개념 규정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에 위배되는 투옥, 구금, 육체적 억압을 비롯한 여러형태의 구속을 받고 있는 사람"에 준하여 "정치수배"는 넓게 보아 '양심수'와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켜 사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우리는 정치수배 해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수배가 양산된 실정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 집시법등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지금 그 법률에 의한 정치수배는 부당하며 따라서 정치수배는 해제되어야 한다.

둘째, 노태우 정권의 폭압적 정치상황하에서 발생한 정치수배는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권에 와서 더이상 지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즉각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

셋째, 수배 발생의 배경에서 한발짝 물러선다 하더라도 기본 인권의 구현과 사면복권의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즉각적 수배해제는 당연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넷째, 정치수배는 역대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시키고 문민정부 구현의 시금석으로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대책위 참가자 신상명세

번호	이름	학 교 (활동내역)	수 배 내 역	서 명
1	조 정신	89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남대협 의장	이철규 열사 진상규명투쟁	
2	권 오중	90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전대협 제 1기 조총위위원장	북한 영화 상영 조국통일 추진그룹 사건	
3	손 인호	92년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서총련부의장 권한대행	범청학련 관련	
4	안 영민	91년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대경총련 의장	91년 5월 투쟁 관련	
5	정 영훈	서울대학교 91년 졸업 91년 전대협 정책위원	91년 전대협 정책위 사건관련	
6	권 응상	외국어대학교 이란어과 89	91년 6.3 정원식 총리서리 항의시위 관련	
7	정 철	외국어대학교 신 방 과 89	동일	
8	정 상용	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90	동일	
9	윤 영덕	91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3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10	임 헌태	91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서총련부의장 권한대행	91년 강경대 열사 시위 관련	
11	이 철상	91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집시법, 폭력, 국보법 등	
12	윤 진호	90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90년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90년 5월 투쟁관련	
13	박 홍근	92년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전대협 의장 권한대행	국보법, 집시법, 선거법 등	
14	이 병철	92년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3월 특수 공무집행 방해	
15	윤 종화	90년 영남대학교 학생투쟁위원장	90년 5월 투쟁	
16	정 은철	연세대학교 85 88년 서총련 정책위원장 89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임수경 방북 관련	
17	정 우식	91년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범민족 대회 관련	
18	김 중철	영남대학교 90년 대경총련 정책위원장	90년 5월 투쟁	
19	김 억남	영남대학교	90년 9월 집회	
20	이 수찬	91년 한양대학교 사회부장	91년 5월 특수공무집행 방해	

번호	이름	학 교 (활동내역)	수 배 내 역	서 명
21	김 영하	92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전대협 조총위 위원장	범청학련 관련	
22	송 옥	92년 서울대학교 부학생회장	선거법 관련	
23	최 홍재	고려대학교 신방과 4학년 91년 전대협조총위 권한대행	국가보안법	
24	송 인배	91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부울총협 의장	91년 5월 투쟁관련	
25	손 옹희	부산대학교 88 부학생회장	89년 부울총협 프락치 사건	
26	최 종해	91년 동아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5월 투쟁 관련	
27	이 상진	부산대학교	91년 5월 투쟁 관련	
28	이 명곤	부산대학교 91년 전대협 정책위원장	91년 박성희, 성용승 방북투쟁	
29	배 수창	92년 전남대학교 투쟁국장	집시법, 화염병 처벌법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30	정 보성	92년 전남대학교 공대회장	92년 총선관련 집회 및 시위주도 화염병처벌법	
31	박 선택	92년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여순대협 의장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32	강 찬선	92년 호남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3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33	박 용	92년 전남대학교 부학생회장	92년 5월 집시법, 화염병처벌법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34	손 병호	92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부경총련 의장	92년 5월 인공기 계양 범청학련 건설	
35	송 진환	92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92년 남총련 의장	92년 5월 인공기 계양 범청학련 결성	
36	김 정택	92년 고려대학교(조치원) 총학생회장, 충남총련 의장	범청학련 관련, 집시법	
37	이 광표	91년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	집시법, 국가보안법	
38	박 동섭	92년 창원대학교 부학생회장	집시법, 폭력	
39	김 기석	90년 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집시법	
40	김 형욱	91년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 91년 전북학협 의장		

국가보안법을 사랑하게 된 대통령

잡기 힘들고 놓치기 싫은 것이 권력인가 보다. 악법을 휘두르는 독재정권에 맞서 단식투쟁까지 했던 김영삼 현 대통령이, 이제는 군사독재가 물려준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난 6월, 민주당 이기택 대표와의 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극렬히 주장했던 것이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왜 그랬을까? 권력을 유지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까?

1. 국가보안법의 생성과 발전

(1) 악을 잉태한 국가보안법의 제정

지난 45년간 이땅에서 국가보안법에 걸려 죽은 목숨이 얼마이며, 옥에 갇힌 양심들은 얼마였던가? 한국현대사에 가장 큰 비극인 한국전쟁만큼이나 이 땅 민중들의 피와 눈물을 짜낸 민중의 적,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母法이 되어야 할 刑法이 제정(1953년)되기 5년전의 일로써 해방정국의 정적들을 탄압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이 급조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1조 : 국헌을 위해하여 정부를 침징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치안유지법 1조 : 국제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2) 악의 씨앗은 괴물로 자라고...

민족분단에 기생한 분단의 법제인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억압체계로서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내재화하고 있었다. 이것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라는 30년간의 군사독재자들과 결합하면서 이 땅의 민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괴물로 자랐다. 한국 사회는, 일제하의 '치안유지법' 시대에서 '국가보안법' 시대가 된 것이다.

번호	이름	학교 (활동내역)	수배내역	서명
41	정진웅	91년 군산대학교 총학생회장		
42	이태규	전북대학교 91년 투쟁국장	파출소 습격	
43	김상준	외대(용인) 86 용성총련 정책국장		
44	오병선	시립대학교	편지왕래	
45	장용우	91년 인대협위원장	집시법, 폭력	
46	김창환	전북대학교	91년 5월 집회	
47				
48				
49				
50				

2. 국가보안법은 왜 철폐되어야 하는가?

- (1) 존립근거의 부재 : 국가보안법의 골격개념인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에 대해 사실상의 승인(UN 동시가입)과 남북교류의 진전 등, 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로 더이상 국가보안법이 존립한 여지는 없다.
- (2) 유추해석의 남용 : 법 집행의 기본정신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법률 규정형식이 불명확하고, 개념이 모호하여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 (3) 법규의 중복성 : 형법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 법규와 중복된다.
- (4) 현실적용 과정의 문제점 : 이제까지의 현실적용 과정이 국가보안보다는 정치적 반대자의 탄압이나, 인권유린의 과정이었다.
- (5) 제정과 개정의 문제점 : 현 국가보안법은 1980년 비정상적 입법기관인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제정되고, 1991년 5월 11일 여당단독 날치기로 통과된 법률이다.

3. 6공 정치수배자와 현 정권이 이념적 탄력성

6공(노태우 정권) 정치수배자로 본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자이다. 또한 현 정권출범 이후에도 많은 국가보안법 위반 수배자가 양산되고 있다. 문민정부의 이념적 탄력성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이렇고도 문민정부라고 할 수 있는가?

89년,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이던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형법과의 통합까지 주장했었다. 그후 대통령이 되기 위해 3당 야합을 하고, 91년 5월 11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날치기 통과를 자행하였다.

세계는 이미 이념대립에 근거한 냉전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다. 대만도 중국과의 적성관계 청산을 선언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민중은,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4.19와 5.18광주항쟁, 그리고 6.10민주항쟁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위대한 국민이다.

이제 김영삼 정권은 결단해야 한다. 권력유지의 편의를 위해 군사독재의 더러운 잔재위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보안법의 철폐로 획일적인 군사문화와 반공이데올로기에 오염된 한국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정화할 것인가?

국가보안법의 시대에서 자주 통일의 시대로 !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쫓기는 마지막 수배자이고 싶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수배자가 되어야 문민정부가 표방하는 과거청산과 개혁을 넘어 진정한 자주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무기한 농성투쟁 계획

- 8월 10일 : 전국 정치수배자 총회
- 8월 11일 : 기자회견
- 8월 12일부터 :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 전개
- 8월 14일 :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 촉구대회(연세대)
- 8월 17일 : 시내 중심지 농성투쟁
(명동성당 또는 기독교 회관)
- 8월 17일부터 9월 초 : 각 학교별 순회 선전전 및
가두 선전전
- 8월 20일 : 청와대 진정서(수배자 일동)와 탄원서
(사회 저명인사) 제출
- 8월 말 또는 9월 초 : 6공 정치수배 해제 지지 집회
(본 대책위, 민가협, 기타)
- 9월 초 : 검찰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무기한 단식농성

6공하의 정치수배는 반드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91년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인천태라고 합니다. 당시 강경대 역사 관련된 집회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수배를 받고 현재까지 약 2년 3개월의 수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6공하에서 수배를 받고 아직까지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200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우연히 친구를 만나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말하기가 거북하고, 혹시나 사실대로 말을 하면 아직까지 수배해제가 안됐느냐는 친구의 질문은 곤혹스럽기조차 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6공 수배자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배해제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지금까지 한 사람의 수배해제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부에서의 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4월 20일 검찰의 발표를 통해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자수를 하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발표의 내용은 유효합니다.

정부는 몇몇의 명망가만 그 외 다수의 수배자들이 이 발표가 있는 직후 자진출두한 것을 예로 들며 4월 20일 발표가 얼마나 정당화할 수 있는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배자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4.19, 5.16, 12.12등에 대한 재해석은 신선하기조차 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현 정부는 자신이 이전의 정권과는 질적으로 다른 정

권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6공하에서 민주화 통일을 위해 일신상의 안락을 저버린채 싸웠던 과거의 학동이 현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요? 최소한 자수하면 관용을 베풀겠다는 식의, 범죄자에 대해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평가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문명시대의 수배자인 남기가 싫어 자진충두를 했다 손 치터라도 몇 년간 곤란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양심은 구속과 불구속 사이에서 반성문과 각서를 써야하는 현실에 갈가리 찢겨져 나갑니다. 사실이 이렇 진데 어찌 정부의 수배 문제에 대한 현재의 입장이 문명정부다운 것이겠습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비상식이 상식으로 되돌려질때 문명정부는 탄생되는 것입니다. 하기에 6공하에서의 정치수배는 즉각 해제되어야 합니다.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위 농성장에서
입헌태썸.

나의 창살 없는 감옥 생활



현재 (8.11) 나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뜻을 같이하는 수배동지들과 함께 정치 수배의 일괄해제를 위하여 무기한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교는 경찰의 원천 봉쇄와 학내 친탐이 우려되고 있고 이글을 쓰는 지금 이순간도 경찰의 친탐 때문에 도망다니며 근근히 원고를 메꾸어 나간다. 철야농성이란 어느때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장기간 수배생활로 건강을 많이 해친 동지들의 (실제는 사전 면식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조처해가는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 안쓰러운점이 없지 않다.

내가 "천상 수배범"이라는 공식명칭을 얻은 것은 89년 7월이다. 연일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에서는 이수경 평양방문을 대서특필하고 있었으며 이수경 방북이 알려진 직후부터 '소위'방북의 배후에 대한 안기부등 수사기관의 집요한 추적이 전개되고 있었다. -- 이수경 평양방문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뻐하는 가장 큰 노력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통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안기부등에 의하여 왜곡되지 아니하고 7000만 겨레와 전세계에 있는 그대로 알려지게 하는 것이었다. 물론 북한에 대하여도 이런 입장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탄압의 빈머를 제공할수 있는 미신적인 부분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였고, 실제 이수경양과 배후선에서 마지막 통화를 하였을 때에도 북한에가서 북한을 무조건 찬양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하고 언제나 남한 100만 청년학생의 공식대표로서 의연히 대처할것을 재삼 당부 하였던 것이다. 또한 애초에 우리는 통일원과 정부 당국이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88년 말 89년 초) 최대한 합법적으로 방문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나는 88년 말경에는 약 200명 정도의 청년학생, 참관인단이 평양을 방문할수 있을 것으로 철썌 같이 믿고 있었다. 어찌든 결과는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적에둔 평양 땅을 지구를 반바퀴나 돌

아 밭을 수 있었고 그 결과로 여러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지금까지 지속되는 격
과를 낸 것이다. --

나는 나의 직책(당시 전대협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과 역할 때문에 "공식
수배"의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내가 수행하고 있었던 전대협 활동
의 제반 과제와 임무를 다른 동지에게 이월하고 장기 잠수함(장기 수배생활)
생활을 위한 경비 마련과 여타 실무적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식
수배의 시기가 그렇게 빨리 닥쳐올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연일
발표되는 안기부 수사의 예봉은 최소한의 시간 지연을 위하여 예비된 방북 준
비단의 알리바이를 허무하게 무너뜨리면서 이미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당시 나는 교지 "연세"에서 100대 정도의 원고 청탁을 받고 있었고 이를 집필
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조달한다는 계획 아래 연세대에서 가까운(서문을 건너면
보이는 곳)형수님의 친정 즉 사돈 어머니댁에서 한가하게 원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안일한 정세판단과 안기부 수사력에 대한 과소 평가는 불
과 몇 일을 못넘기고 산산히 부서지게 된다. 89년 7월 어느날 텔레비전 아침
방송의 뉴스를 시청하던중 튀어나온 박종영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이었다.
박종영(당시 전대협 평양축전 준비위원회 정책실장)의 이름과 경력이 보도되고
'소위'평축참가의 배후세력으로 그가 지명되는 순간 나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
고 공식수배에 오르는 것은 이미 초읽기가 끝나 있다고 나는 직감하였다. 더이
상 머무르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몇가지 옷가지만 챙겨서 정처없는 수배생
활에 오르게 되었다.

당시 나는 이학여대의 한 여학생과 사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 뿐이었다. 따라서 안기부에서 이것만은 결코 알지 못하리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나의 착각이었음이 곧 밝혀졌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한 친구(당시 이학여대 4학년)는 나의 경솔한 심부름 부탁으로 안기부
에 연행되어 조사받게 되었고 이어서 내가 사귀던 여학생 또한 안기부에 연행
되어 곤욕을 치른 것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비상시 마지막 자금
조달원마저 사라지게 되었으며 당시 내가 가지고 다니던 현금 카드(당시 잔액
30만원 정도) 또한 그 여학생 이름으로 된 것이었기에 당장 현금 인출이 불가
능해져 수중에 남은 현금은 지방에서 월세방 하나의 보증금이 될까 말까하는
정도의 액수에 불과하게 되었다. --수배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두가지
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은폐할 수 있는 가짜 신분증을 마련하는 것이
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
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양자에 모두 실패하였다. --

결과로 정기적 만남을 가지고 있던 박종영과 나는 당분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방세 보증금 생활비 전액을 위하여) 수배준비를 끝내고 대양의 전
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전주 생활은 지금껏 전국 각지를 떠돌던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안정적 생활의 출발이었기에 비록 가진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두사
삼은 희망과 삶에 대한 의욕에 가득차 있었다. 실제로 전주에서의 생활은 비록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수배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안정된 기간이었다. -이 기
간 동안 나는 레스토랑 주방에서 주로 일하였고, 91년 말에는 전주 컴퓨터직업
훈련원에 입소하여 컴퓨터 기술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이기간은 오래가지 못하
였다. 90년 말부터 분가하여 대전에서 살고있던 박종영의 피건(91년 10월)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 그가 연행된 사실을 사건발생이 이틀정도 경과하여 알게된
나는 그 즉시 그 지역을 떠날수 밖에 없었으며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기 위해
힘들게 생활해야 했다. --수배생활중 부딪치는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있지만 경
제적, 심리적으로 가장 큰타격을 끼치는 것은 근거지의 상식을 으뜸으로 들수
있을 것이다. 수배초기에는 각곳도 많이있고 도타죽 선배, 후배 등이 무한정 할
것 같지만 수배기간이 한달 두달 흐르면 이미 각곳은 바닥나고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도읍의 손길을 찾아내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진다는 것을 실
감할수 있다. 특히 한번 방문한곳은 다시 찾지 않으려 하기에는 그 번위는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방세 보증금, 생활용구, 옷 등을 전혀
건지지 못하게 되는데 그 타격은 엄청난 한달 이상의 무력증과 초조, 긴장등의
병리현상을 일으키게된다. 종영이이의 연행은 실제 상황으로 발생한것이지만 같
이 지내는 사람과의 연락 실수로 면방위 연습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의
극단적 모습은 전주생활 이후 수원 근교에서 새롭게 시작한 수배 2기 기간동안
에 발생하게 된다. 첫번의 타격을 어느정도 극복하고 방도 얻고, 직장도 구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중 92년 1월 중순경 뜻하지 아니한 소식
을 전해듣게 되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이다. 차라리 감옥안이면 어쩔수
없거나 생각하건만 수배생활에서 상을 당한이의 고통은 이중고 일수 밖에 없
다. 각수 도 없고 그냥 있을수도 없고, 특히 나는 수배생활 시작때 한번 전화
드린것 이외에는 지금껏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못하였기에 더욱 고통스러울수
밖에 없었다. 저축한돈 50만원을 어머니 수의라도 해드리라고 아는 분을 통하
여 전달하고 그날은 회사를 쉬었다. 문제는 그날밖에 일어났다. 못하는 숙을
조금 과하게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문에 메모 한장이 붙어 있었다. "지금 있
는 곳이 알려진것 같다" 내 추측에는 조문가신 분의 위치가 드러났다고 판단되
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곳을 떠날수 밖에 없었다. 직장도, 거처도, 월전 월급도
모두 포기하고. 이때의 충격이 내 수배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것이었다. -이후
그 소식은 중간 전달자의 실수라는 것이 밝혀지긴 하지만 동요된 심리적 안정
은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법이다. 이후 나는 급격히 식욕이 감소하여 대식가의
자리에서 소식가의 위치로 옮겨 왔으며 몸무게도 7kg이상 빠지게 된다.

동요된 심신의 안정을 위하여 그해 겨울 설악산, 소백산, 덕유산에 이어서 산
행하고 지금껏 두절된 예전의 친구들과 연락하여 소식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연락 못하던 사귀던 여학생라도 새롭게 연락하여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해 가을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광명시의 한교회에서 아는 목사님의 주례로 수배된 동료, 몇분의 선배들과 함께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는 당시 MBC 방송국의 구성작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결혼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였다. 그럭저럭 밖에 없는 것이 우리 두사람의 결혼은 곧 한사람의 생활적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되는데 어느 누구든 그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또한 결혼을 하면 그녀 또한 나와 함께 예전의 인간관계를 모두 단절하고 수배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결단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영국에 청판을 깔고 결혼할 것을 요구 하였고 그녀 또한 이러한 나의 청혼을 받아 들었다. 문제는 부모님의 설득이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녀 부모님은 쉽게 승낙하셨고 나의 아버지, 형님 등 가족들도 찬성하여 주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결혼은 성공하게 된 것이다. 비록 부모님, 가족들과 함께 하진 못하였지만, 물론 호적 정리도 하지 못하고 있기에 두사람다 법적으로는 미혼이다.

결혼한 이후 나는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한달여를 앓아 눕게 되었다. 아마 그간의 긴장이 결혼으로 인하여 많이 풀어진 모양이었다. 혼자 있을 때는 아프고 싶어도 아프수도 없다. 약지어 죽 사람도 없고 죽 한그릇 끓여 죽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에 나는 거의 앓아 누워본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건강한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어렸때부터 병약한 체질이었다.

어쨌든 결혼 이후 나의 수배생활은 비교적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생활의 모색을 시작하였다. 못다한 컴퓨터 공부도 계속하고 학원의 수학강사로 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배라는 조건은 모든 방면에서 우리생활의 전개를 압박하였고 나아가 삶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자격증(조리사, 컴퓨터 정보처리, 하드웨어 분야)을 따고 직장에 취직하고 사람을 만나는 그 모든 문제 있어서. -따라서 수배문제 해결을 갈망할수 밖에 없으며 특히 김영삼 정부의 등장이후 수배해제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감정은 더욱 절실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수배문제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수배의 특성이 고립한 개인화 비공개화이고 이러한 수배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여론과 언론의 시각에 들수 밖에 없고 고립화 정도 또한 날이 갈수록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수배자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고 해결에 대한 의지 또한 강력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전체 수배자들의 개인적 의지는 전국의 수배자가 스스로 자기문제를 개척하고자 움직이게 하였고 나 또한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의 수배해제 촉구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나의 수배생활을 돌이켜 볼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것은 영원히 벗지 못할 하

나의 집으로 되었음을 느낀다. 특히 수사기관 으로부터의 동선 파악을 차단한다는 명목하에 가족과의 연락을 완전히 두절할것은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다.

또하나 아쉬운으로 남는것은 초기 준비부족으로 생활현장의 경험과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禍로 다가선 수배생활을 轉禍爲福의 자세로 완전히 역전시켜 내지 못한것이다. 그렇 함께 수배생활에 있어서 어려운것은 역시 가족 친지 친구 등 보통의 인간관계를 차단하고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뱃속깊이 느끼었다. 또한 개인 생활에 있어서 정치, 경제 활동의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억연하게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고통이었다.

그렇지만 수배생활을 통하여 사람다운 삶과 동류간의 혹은 선배배간의 뜨거운 의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이는 이후 삶에 있어서도 뚜렷한 지침이 되고 생활의 밑받침이 된것이다. 비교적 장기간 수배생활을 영위해 왔지만 이것이 자신이 강하고 인내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결코 생각하지 못한다. 주변에서 묵신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것이 비로소 가능해졌고 아버지 어머니의 뜨거운 새벽제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차라리 감옥 가겠다”

6공 '정치 수배자' 35명 농성... '수배 해제' 호소·협상

“공인세력 포로는 89년 7월 이후 ‘참살없는 감옥’ 도피 4년

내가 '현상수배범'이라는 공식명칭을 얻은 것은 89년 7월이다. 텔레비전·신문·라디오에 서는 연일 임수경 평양방문을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그 사건과 함께 나의 수배생활은 시작되었다.



전국 정치수배자 농성돌입 기자회견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

야심수 전원석방!

11일 정오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정치수배자 대책위' 조정신 위원장(왼쪽)이 6공의 시국관련수배에 대한 일괄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윤섭 기자**

“6공정치수배는 해제되어”
 신한국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에 정치수배자들이 참살없는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오 아십니까?
 지금 6개지역의 50여명의 정치수배자들이 연 와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 조속한 시일내에 수배해제에 대한 정치적인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일은행 126-369140-01-001(예금주 : 조 전국의 6공 학생정치수배자들은 14일까지)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
 조정신, 정영훈, 권오중, 송인배, 권을 박홍근, 김기석, 정우식, 윤진호, 이철성 정은철, 손웅희, 최종해, 허정우, 이상 김중철, 김

기 사 회 견 문
 도 자 료

별 첨 자 료

1.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정치수배자 대책위...
 2. 김영삼 정부의 출범 이후에 정치수배자들이 참살없는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오 아십니까?
 3. 지금 6개지역의 50여명의 정치수배자들이 연 와 양심수 전원석방,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위 하고 있습니다.
 4. 김영삼 정부가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 조속한 시일내에 수배해제에 대한 정치적인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5. 한일은행 126-369140-01-001(예금주 : 조 전국의 6공 학생정치수배자들은 14일까지)
 6. 6공 정치수배문제 해결을 위한 전

보 도 자 료

기 사 회 견 문

탄 원 서

검 찰 총 장 면 담 요 청 서

현 정부가...
 진정한 문...
 지난 시...
 정치수배문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1993년 8.11 12:00

발신 :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361-3645)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내용 : 6공 정치수배의 일괄해제를 촉구하는 전국 정치수배자 농성돌입 기자회견

1.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위원장 曹正信 27세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는 8월 11일 12시에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기자실에서 6공정치수배자 40여명과 기자회견을 갖고,
2. 6공 정치수배문제에 대한 '자수하면 최대관용'이라는 검찰의 입장은 수배자들의 양심과 지조를 개별화시켜 파괴하려는 군사독재적 발상이라고 평가하고 정치수배를 양산했던 군사독재시절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3. 또한 반드시 청산해야할 군사독재시절의 잔재인 양심수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등 악법의 개폐, 6공 정치수배의 일괄해제를 촉구했다.
4. 아울러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검찰총장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첨부자료 1 :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2 : 대책위 참가자 신상명세

기자회견문

-6공 정치수배의 일괄해제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가며-

1. 6공 정치수배 문제는 수배자 개개인의 양심과 지조를 파괴함으로써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수배를 양산했던 비 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극복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지난 군사독재 시절에 조국의 민주화에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내려진 수배조치는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권이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난 지금도 200여명의 6공(노태우정권) 정치수배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6공 정치수배 문제를 바라보는 검찰과 현 정부의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자수하면 최대관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관용이 무엇인지 보편적 기준도 없이 검찰의 잣대로 개개 사건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조와 양심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정치수배자들에게 자수와 반성문, 그리고 각서를 쓰게하여 6공 정치수배자들을 개별화시킴으로써 수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군사독재적 발상입니다.

현 정부가 지난 30년간의 군사독재 잔재를 청산하려는 진정한 문민정부라면 수배조치를 양산할 수 밖에 없었던 지난 시대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정치수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 청산되어야 할 군사독재시절의 유산인 양심수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의 철폐, 그리고 정치수배의 일괄해제를 현 정부에 촉구합니다.

아직도 감옥에는 300여명이 넘는 양심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군사독재 시절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유지시키는 도구였던 국가보안법을 필두로 한 제반 악법들이 전혀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책위는 6공 정치수배 문제를 결코 개개인의 신분을 합법화 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정치수배를 양산했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의 극복과 함께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악법철폐의 동일선상에서 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3. 6공 정치수배 문제를 슬기롭게 풀기 위하여 우리 대책위와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는 6공 정치수배자들은 문민정부로서의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치수배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된다면 개혁과 민주화의 과정에 동참할 의지도 있습니다.

현 검찰이 진정 문민정부의 검찰이라면 현재의 입장을 철회하고 군사독재 시절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극복하는 관점에서 정치수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정중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4. 검찰과 현 정권이 계속 현재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우리 대책위는 양심수 전원석방-악법철폐-정치수배의 일괄해제를 위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면담요청서

수신 : 박 종철 검찰총장 귀하

발신 :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

제목 :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요청

1.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는 6공(노태우 정권)하에서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등의 사유로 수배중인 6공 정치수배자들의 모임입니다.
2. 본 대책위에는 93년 8월11일 현재 35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93년 8월 10일부터 6공하 정치수배자들의 일괄해제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3. 본 대책위는 지난 4월 20일 발표이후 검찰이 견지하고 있는 "자수하면 최대관용"이라는 6공 정치수배 문제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였으나, 보편적인 기준이나 형식도 없이 개개사건을 검찰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군사독재시절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화와 개혁을 완성시킬 문민정부하의 검찰이라면, 정치수배를 양산할 수 밖에 없었던 군사정권시절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을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6공 정치수배자를 일괄해제 또는 그에 준하는 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이 본 대책위의 입장입니다.
5. 이에 본 대책위와 검찰과의 직접대화를 통하여 6공 정치수배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치수배자 처리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검찰총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6. 대책위 대표의 신분이 보장된다면 어디에서도 면담에 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면담수용 여부에 대한 귀측의 입장을 8월 20일까지 회신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면담 요구를 수용하신다면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93년 8월 12일

6공 정치수배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 대표 조 정신(曹正信)외 34명

☛ 대책위 사무실 TEL 361-3664

FAX 361-3643

☛ 별첨자료 : 대책위 참가자 신상명세서

4. 검찰이 검찰이 계속 전세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우측은 검찰이 계속 전세의 입장을 고집한다면
일원 회담이 불가능하며 검찰이 회담을 거부할 경우
쟁탈 것입니다.